

국의 출장 결과 보고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참관 출장

2016.12.10. 창의예술인력센터 이한신

1. 출장결과 개요

가. 출장 목적

- 2013년부터 지원해온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협력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사업의 참관자(옵저버)로 참가하여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아틀리에에 멘토로 참가하는 유럽 유수의 기획자들 뿐 아니라 참가자들과의 협업을 도모하고 우리 위원회와의 신규 협력사업 모색 발굴

나. 출장 기간 : 2016.12.01.(목)~12.07.(수)/ 7일

다. 출장 장소 : 태국 치앙마이 (치앙마이 예술대학 등)

라. 출장자 : 1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출장 담당업무
출장자	창의예술 인력센터	센터장	이한신	남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진행과정 및 성과 모니터링 ○EFA 멘토 및 아틀리에 참가자와의 협업 및 협력거점 신규 발굴 등

마. 출장업무 수행내용 및 일정

월일(요일)	주요 활동 및 일정	비고
11.30(수)	○이동(인천→치앙마이)	KE667
12.01(목)	○아틀리에 역사, 진행내용 사전 학습 (09:00-13:00) ○참가자등록 및 참가자 인사 (15:00-18:00) ○개회행사 참석 (18:00-21:00, 치앙마이예술문화센터) ○한국참가자 2차 간담회(21:00-23:00, Kantary Hills Hotel)	(축사) Ms. Supawan Teerarat 등
12.02(금)	○아틀리에 역사,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계획 발표 참관 참가자 상호소개 참관 (09:00-13:0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2016년 주요 주제 1차 토론 및 멘토 특강·질의응답 참관 (14:00-21:0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멘토) Nele Hertling
12.03(토)	○참가자 발표 참관 (09:00-13:0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멘토)김성희

월일(요일)	주요 활동 및 일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주요 주제 2차 토론 및 멘토 특강·질의응답 참관 (14:00-18:0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 축제현장견학 (18:00-21:00 치앙마이디자인위크, 치앙마이 예술문화센터) 	
12.0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발표 참관 (09:00-11:00 Bann Suan레지던시) ○ 2016년 주요 주제, 토론그룹 구성 및 그룹별 토론참관 (13:00-18:00 Bann Suan레지던시) 	(진행) Hugo de Greef
12.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문화공간견학 참가 (5개 조별 각조 2-3개 공간탐방) (09:00-15:00 MAIIAM Contemporary Art Museum 등 15개소) ○ 예술,문화공간견학 소감, 조별 발표 참관 (15:00-17:0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 멘토 특강·질의응답 참관 (17:00-18:3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멘토) Kee Hong Low
12.0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특강(2명)·질의응답 참관 (09:00-13:3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 2016년 주요 주제 3차 종합토론 (04:00-18:00 치앙마이예술대학 예술지원센터) ○ 한국참가자 2차 간담회(20:00-22:00, Kantary Hills Hotel) 	(멘토) Bernard D'Arcier Mark Ball
12.7(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시간 (09:00-12:45) ○ (참가자 및 멘토)아틀리에 성과 및 소감 종합토론 참관 (13:30-17:30 레스토랑 Nasi Jampru 레스토랑) ○ 아틀리에 폐회식 참가 (18:00-22:00 Ban Mon Fai 아트센터) 	(축사) Mr. Pawin Chamnprasart Hugo de Greef 등
	○ 이동(치앙마이→인천)	KE668

바. 출장경비 집행내역

예산과목	내용	집행내역(원)	
		계획	집행결과
일반수용비	○ 참가비 : 150€x1,400x7일 = 1,470,000	1,470,000	1,470,000
	○ 데이터로밍요금	70,000	51,421
	○ 국내운송료 : 서울↔인천공항 택배운송	40,000	0
공공요금및제세	○ 여행자보험료	33,770	33,770
여비(국외여비)	○ 항공료	925,000	925,000
	○ 숙박비 (참가비에 포함)	0	0
	○ 일비 - 계획(\$30×7일×환율1,200원)=252,000원 - 집행(\$30×7일×환율1,167원)=244,070원	252,000	244,070
업무추진비	○ 현지업무추진비 : 360,000원 (\$100이내x1,200원x3회)	360,000	0
합계		3,150,770	2,724,261

2. 출장 주요 성과

가. 참관 업무의 범위와 모니터링 내용

업무범위	세부사항 (모니터링 과제)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① 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프로그램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② 올해 아틀리에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③ 올해 아틀리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각국 참가자들의 의견과 만족도는 어떠한가? ④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 기획자들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올해 참가한 우리 기획자들의 의견과 만족도는 어떠한가?
신규 협력사업 모색 및 발굴	① 기획자 육성을 위한 국내외 각각의 프로그램 사이에 우리 위원회는 어떤 연계 발전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②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 등, 우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참고할 시사점은 무엇인가? ③ 신규협력사업의 모색 및 발굴

나.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 EFA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프로그램의 위상

○ 객관적 위상

- EFA (유럽축제협회 European Festivals Association) : EFA는 1952년 설립된 협회로서 15개의 축제에서 40여개, 100여개 축제가 가입한 조직. EFA는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정책 아이디어 개발, 축제 간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실행중임 (현재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원 축제는 88개로서 모두 유럽 국가의 축제이며 예외적으로, 한국의 제주 음악섬 페스티벌 1개, 이스라엘 1개, 레바논 2개, 아랍에미레이트 1개의 축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대표적인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EFFE (Europe for Festivals, Festivals for Europe) : 정보교류, 우수축제인증, 우수 축제 가이드, 우수 축제에 대한 지원 등을 실행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EFFE is an initiative of the European Festivals Association co-financed by the European Union." - <http://www.effe.eu/>

- The Festival Academy (교육연수프로그램)
- 교육연수프로그램 ① Atelier for Young Festival Managers : 7 일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전 세계 각지의 45 명 내외의 젊은 예술 축제 기획자가 한자리에 모여 축제 관리의 예술적 측면을 다루는 워크숍, 강연, 토론, 문화 시설/공간 견학 등을 진행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축제의 대표자나 기성 기획자가 함께 참여)
- 교육연수프로그램 ② Festival Production Management Training : 페스티벌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작품을 제작하는 역량 교육 및 실제 실현에 초점을 둔 과정으로서 예술가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의 관리 및 페스티벌 안에 제작 작품을 배치하는 실무능력 함양을 목표로함
- 교육연수프로그램 ③ Festival Readings : 주요 축제의 부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축제 기획자가 축제 기획과정을 공유 및 토론
- 이수자네트워크(The Alumni Network) : 위, 3개 프로그램을 이수한 66개국 약 400명의 이수자 네트워크. 정보교류, 협업증진, 경력개발 협력 등을 목표로 운영

The aim is to allow for extended cooperation, networking and career opportunities.
<http://www.thefestivalacademy.eu/en/alumni-network>

○ 주관적 위상

- 1일차, 개막식의 기조연설에서 멘토 중에 한명인 Nele Hertling은 ‘예술의 사회 기여를 언급하며, 예술 축제가 사회 통합과 평화에 기여해야 하며, 미국 대선, 영국의 EU탈퇴, 전쟁과 난민문제 등 전 지국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젊은 기획자의 역할’을 강조
- 2일차, 프로그램 개관 설명 중, 멘토 중에 한명인 Hugo de Greef는 ‘The Festival Academy가 차별성을 갖는 키워드는 Young, Emerging, Global, Network, Art & Artist라고’ 하며 ‘7일의 집중형 프로그램, 도시를 순회라는 방식 (City Choice), 서로 다른 배경의 참여자 등을 특징’으로 언급
- (참고) 2017년 주요 계획은 2017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Festival Production Management Training 과정을 개최 예정이며, The Festival Academy 10년의 기록을 정리할 계획이며 (Academy는 2006년부터 개최됨), 이수자의 활동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2) 2016년 치앙마이 아틀리에 프로그램의 운영 특징과 시사점

○ 프로그램의 구성

-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부 부분으로 구성됨. ①멘토(선배 기획자)의 특강과 토론 ②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에서 직면하는 공통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 ③ 참가자 각각의 프로필, 참여하고 있는 페스티벌과 과제 등 현안 발표와 토론 ④ 문화공간탐방(견학)
- ①, ②, ③ 모두, 발표와 토론 (멘토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③은 첫째 날을 제외한 6일간의 일정 내내 순차적으로 진행
- 올해의 경우, 치앙마이에서 현대예술을 다루는 공간, 행사의 부족 때문에 현대예술 공간 및 발표 (특히 현대 공연예술) 현장이 충분치 못해, 프로그램보다는 공간방문에, 그리고 현대예술보다는 전통예술에 기반한 예술행사 참여에 치우침

○ 멘토(선배 기획자)의 특강과 토론

- 선배 기획자의 다양한 경험을 듣고, 질의응답에 기초한 토론방식으로 운영
- Nele Hertling : 다양한 기획사례와 경험에서 나온 기획자의 태도와 자세 발표
- Robin Archer : The Light in Winter Melbourne 등 호주에서의 다양한 기획사례 발표
- Mark Ball : 런던국제연극제(LIFT) 최근 진행 방향과 결과 사례 발표
- Bernard Faivre D'Arcier : 아비뇽페스티벌의 출범 초기, 방향성, 성장배경 발표
- 김성희 : 아시아문화전당의 출범, 사업방향과 개막행사 준비 경험 발표
- Kee Hong Low : 싱가포르아트페스티벌 기획 경험과 세부 프로그램 사례 발표

○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에서 직면하는 공통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

- Hugo de Greef가 진행을 맡음 : 진행과 조정을 맡음
- 멘토(선배기획자)들이 먼저 정리한 17개 이슈를 토대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거쳐 15개 이슈로 다시 정리한 후 유사한 이슈별로 모여서 그들 이슈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각 그룹별 토론 후 종합 발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구체적인 연구조사 자료나 근거자료를 토대로 토론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각 참가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에서 직면하는 공통주제 (1차 논의 주요이슈)

1. pleasing the audience vs artistic integrity
2. local - international
3. audience participation & integrity
4. international exposure of local artists through the festival

-
5. presentation & production
 6.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 & non professional
 7. artistic quality
 8. sustainable relation with public and festival
 9. continue successful festival (be fresh festival)
 10. how to avoid and how to deal with restrictions from th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s (media & censorship)
 11. how to remain as an art festival
 12. new technology for communication and for digital artworks (virtual creation and communication remotely)
 13. creative industry as recognition of the arts in our daily life
 14. identity of festival in case og this is not connected to a location or place
 15. the art reflecting reality without becoming a political tool
 16. if you have no budget at all
 17. embracing uncertainty
-

- 참가자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 후 종합 토론을 진행. 종합토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유사성을 기준으로 7개 영역으로 이슈를 재편성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에서 직면하는 공통주제 (논의 후 정리된 과제 영역)

1. local and international production
 2. audience participation & integration / pleasing audience / artistic integrity risk taking / building trust
 3. how to continue successful festival (ambience, partnership, success planning)
 4. how to deal with restrictions from th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s (censorship, restrictive working, conditions, political situation)
 5. embracing uncertainty (financial risk, social change)
 6. funding (the alternative economy, creative resourcing)
 7. festival identity (programming)
-

- 참가자마다 환경과 페스티벌의 유형이 다르므로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통적인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데에 주력함. 페스티벌 마다 서로 다른 해법이 필요하므로 가장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었음. 이러한 여건 때문에, 논의가 계속 동어 반복되는 문제점도 나타남. 이때 멘토들이 경험과 사례를 제시하여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를 거둠

- 참가자 각각의 프로필, 참여하고 있는 페스티벌과 과제 등 현안 발표와 토론
 - Hugo de Greef가 진행을 맡음 : 진행과 조정을 맡음
 - 참가자들에게 미리 요구한, 프로필 기술서와 참가자 본인의 관심사 또는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페스티벌의 소개와 현안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1일 약 5명 내외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서로 질의 응답 진행
 - 참가자와 다양한 페스티벌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음. 그러나 질의 응답은 몇몇 적극적인 참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도 있었음.

- 문화공간 탐방
 - 전원이 참여한 문화프로그램은 치앙마이디자인워크(2016.12.3.-12.12)였음. 아틀리에 기간 중 열린 전시회여서 전원 참관
 - 기간 중 1일, 현지 문화공간 탐방 견학을 실시함. 참가자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MAIIAM Contemporary Art Museum 등 15개소에 견학을 실시, 그룹 별 각 2개 또는 3개 공간을 방문
 - 치앙마이시에는 비교적 대형 공간이 부재하고 특히, 동시대예술 공간이 부족하여 창작 레지던시, 소규모 창작공간 등이 위주였음
 - 그러나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음. 탐방기회의 상대적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 규모는 작지만 내실있게 운영하는 공간이 많고, 모든 공간이 자연경관과 어울려 공간의 건축적 심미감(아우라)는 높은 편이었음

- 기타 : EFA의 비전과 2017년도 계획 발표
 - 아카데미의 사무국장인 Inge Ceustermans가 EFA의 비전과 2017년도 아카데미 계획을 소개함

- 시사점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4대 요소인 ①멘토(선배 기획자)의 특강과 토론 ②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에서 직면하는 공통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 ③ 참가자 각각의 프로필, 참여하고 있는 페스티벌과 과제 등 현안 발표와 토론 ④ 문화공간탐방(견학) 등은 이 프로그램이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임
 - 멘토(선배 기획자)의 특강과 토론의 경우, 멘토에 따라 주제의 범위나 내용에서 다소 체계성이 부족함. 주관 사무국이 주제를 정해주기 보다는 멘토가 주제와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 발표가 되었는데, 멘토에 따라 자신의 경력과 경험위주의 발표를 진행한 경우, 그리고 페스티벌 기획 사례를 제시한 경우로 나누어짐 (특히, Nele Hertling와 Robin Archer는 발표자료 없이 구두발표만 진행). 따라서 멘토들의 발표내용을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공간탐방(견학) 프로그램은 아틀리에가 진행되는 도시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임. 치앙마이의 경우 동시대 현대예술공간의 부족을 수려한 자연환경과 기후 등 자연조건과 전통예술의 장점으로 보충한 상황임

○ 프로그램 진행 현장 사진

개막식 현장 (1일차)	전체 토론(2-7일차)	그룹 토론(2-7일차)
		
공간탐방(wandering moon)	공간탐방(람프레지던시)	폐막식 수료증 전달(7일차)
		

3) 참가한 각국 참가자들의 의견과 만족도

- 참관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같은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었고, 아카데미의 주최 기관(EFA)도 설문조사와 같은 공식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진행 중의 분위기나, 참가자들과의 대화에서의 응답 등을 종합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음. 특히, 멘토들의 경험이 담긴 강연과 토론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요소로 추측됨. 상대적으로 참가자 각자의 발표와 토론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주제 중심 토론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개관적 자료나 각 사례의 분석보다는 토론 위주의 진행이어서 다소 지루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치앙마이의 자연환경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측되며 (참가자들 중 일부는 농담으로 'Food Festival'이라 평가를 할 정도임) 이는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에 태국 관광청이 참여하여 우수한 공간을 추천하였기 때문임

4) 우리 기획자의 참가를 계속 지원할 필요성 여부

○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기획자와의 간담회 결과

간담일정	간담 주요 내용
<p>1차 (2016.12.1/ 프로그램1일차)</p>	<p>-김혜린 : 이전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해외문화원, 기획자 파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국제적 관점과 식견을 넓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함</p> <p>-심현주 :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기구에서 참가비 및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하여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 (한국의 많은 민간 기획자들이 월 보수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임을 비추어볼 때 자비 참여는 어려움이 많음)</p> <p>-이혜련 : 국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잡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 직원으로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관심이 많음</p>
<p>2차 (2016.12.6/ 프로그램6일차)</p>	<p>-김혜린 : 서로 다른 나라의 기획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축제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Skill)을 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네트워크 형성엔 큰 도움이 됨</p> <p>-심현주 : 구체적인 지식보다는 다른 나라 기획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소득이었음. 동 프로그램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등재되어 있고, 참관(옵저버)도 파견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심적 의지 요소가 됨</p> <p>-이혜련 : 통영 국제음악제를 짚즈페스티벌과 같은 명성을 가진 음악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멘토들과 질의 및 논의 했고, 많은 과제를 고민하고 있음. 아틀리에 참가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p>

○ 참가 지원 필요성

- 우리의 경우 기획자의 중요성에 비해 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장에서 많은 기획자가 재교육 기회의 필요성을 언급
- 특히, 글로벌 역량 교육 측면에서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다수가 예술가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기획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부족
- 반면, 한국예술의 국제화나 세계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적 지식, 감각, 네트워크를 가진 기획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
-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음

다. 신규 협력사업 모색 및 발굴

1) 기획자 육성을 위한 국내외 프로그램 간 연계 체계 모색

○ aPD 아카데미 - APP - EFA 젊은 페스티벌 기획자 아틀리에 연계체계 모색

- 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부터 만 35세 이하 신진 기획자 육성 과정인 aPD 아카데미를 운영 중
- APP(Asian Producer's Platform 2014~매년1회)은 EFA 아틀리에와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목표나 운영체계 면에서 유사성이 있음.
- 창작분야(예술가)에 비해 기획자의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aPD 아카데미 - APP - EFA 아틀리에 연계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aPD 아카데미는 창작에서 기획으로 전환하거나 독립기획자로 활동하는 신진을 대상으로 한 국내 프로그램이라는 점, APP는 경력단계를 구분하지 않은 아시아권 교류 플랫폼이라는 점, EFA 아틀리에에는 신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 각 정체성에 맞게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PP - EFA 젊은 페스티벌 기획자 아틀리에에 대응하는 국내, 현직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aPD Forum 신설시 기획자를 위한 육성, 교류 사업 구성체계(안)]

구분	국내	국제(아시아)	국제(글로벌)
(신진) 양성	aPD Academy	-	EFA 아틀리에
교류	(신설) aPD Forum	APP	

- 상기와 같이, 국내, 국제간 프로그램 연계체계를 구성할 경우 국내 기획자 육성 및 교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aPD Forum aPD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체계(안)]

세부 구성(안)	참여자	목표 및 내용
aPD Academy	신진기획자	신진기획자(프로듀서) 육성
aPD Workshop	현직기획자+ 예술가	현직자 역량강화 재교육 워크숍 예) 리더십, 위기관리 등
aPD Froum (신설)	현직기획자	기획자들의 교류, 정보공유, 현장견학
aPD Lab	현직기획자+ 예술가	장르간, 사회 타 분야 간 융복합 창작 기획연구조사 예) 생태와예술융합창작

○ aPD Froum 신설할 경우 운영방향

- 주요목표 : 현직 경력의 기획자 간 교류, 협력 토대 마련
- 참가대상 : 현직 경력 3년 이상 기획자
- 구성요소 : 3개 요소로 구성 (① 환경 변화, 경향분석 주제 특강 및 토론 ② 참가자 소개, 발표, 토론 ③ 개최지 현장 사례발표 및 참여/견학)
- 운영방식 : 매년 3개 내외 주요 행사, 축제, 공간으로부터 협력개최 제안을 받아, 진행현장을 정하고, 현장에서 상기 ①, ②, ③ 구성요소를 진행.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사례 연구가 가능하도록 진행
- 예시 : 통영국제음악제 기간 중 통영에서 포럼을 열어, ① 세계 음악제 트렌드와 음악축제 발전동향 특강을 듣고, ② 참가자 소개 및 발표, 교류기회 제공 ③ 통영국제음악제의 역사, 프로그램 특징을 사례분석하고 실제 공연을 관람하여 시사점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

2) 기획자 육성 사업 외, 신규협력사업의 모색 및 발굴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해외 현장 탐방 거점 모색

- 아세안 작가들과의 교류거점으로서 태국 방콕아트센터, 각 레지던스 등의 활용 모색. 이번 아틀리에 프로그램 중 읍저버로 참석한 방콕예술문화센터 관장, Luckana Kunavichayanont(Ms.)와 면담. 치앙마이 예술가 레지던스인 Rumpueng 레지던스의 관장 Supachai Satsara (Mr.)와 면담. 한국 작가의 참여 및 레지던스 신청에 대한 상호 협의 협력 추진 논의
- 2017년 무대예술분야 아카데미 연구생 현장탐방 대상지 협의 : 2017년 7월1일부터 9일까지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WSD2017> 개최. WSD는 OISTAT(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nographers, Theater Architects and Technicians/ <http://www.oistat.org>)가 주최하는 행사로 4년에 한 번 열리는 무대미술 전시 및 학술행사임. 동 행사 안에 TAC2017 (Theatre Architecture Competition 2017) 공모전 결과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어서, 무대예술분야 아카데미 연구생 현장 교육에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음. 관련하여 WSD2017 타이완의 주관기관(호스트)인 타이완 무대기술협회 사무국장인 Alina Lin(Miss.)과 WSD에 관한 대화 및 우리 연구생의 방문시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논의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안무자)의 경우, 태국 현대무용의 유명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피췌트 끌런천(Pichet Klunchun)의 극장과 무용단 (방콕소재)를 방문하여 전통무용의 현대화에 대한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구성 가능. 아틀리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췌트 끌런천의 전 매니저 Wayla Amatathammachad (Mr.)와 피췌트 끌

런천의 단체에 대해 간담 (피켓 끝런천은 페스티벌 봄 등에서 초대되어 한국에도 알려진 안무가임)

○ 한국예술가 추천 건 협의

- 이번 프로그램에 읍저버로 참가한 태국 문화예술 중견 기획자인 Sornchat Aom Krainara(Ms.)는 한국 작가를 2018년 본인이 기획하는 축제에 초대의사를 밝히고 추천을 요청함. 축제의 방향 등이 결정되면 연락을 주기로 함

-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참가한 이스라엘의 Moshe Shechter(Mr.)은 본인이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텔아비브 무용제에 한국 무용가를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함. 추후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연락하기로 함 (멘토로 참여한 전 아시아문화전당 김성희 감독에게도 요청)

.끝.